

개혁·개방기 중국 정치학 발전의 성과와 과제

박동훈(중국 연변대학교)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주로 중국 정치학 수용과 발전의 과정을 분석하고, 최근년래 중국정치학 발전의 주요 특성과 그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문제점들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한적 정치환경 속에서도 중국의 정치학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한계도 존재한다. 즉 학술의 정치화 현상이 돌출하고 현실정치에 대한 예리한 시각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학의 정치성과 지배이데올로기간의 긴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는 진일보로 정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환경 개선을 통해 학계 내 구성원들을 학술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중국 정치학 지속적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청우계가 될 것이다.

주제어: 중국, 정치학, 성과, 과제

I. 서론

주지하다시피 중국 정치학(politics)의 사상적 근원은 고대 선진(先秦)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치학(political science)도 그 시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꽤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¹⁾ 그러나 중국에서의 정치학 발전은 기타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험난한 역정을 경험해 왔다. 특히 경험주의 철학에 입각한 행태주의가 미국에서 고조를 이루던 1950-60년대에 중국에서는 학문으로서의 정치학 존재자체마저 거부되었다. 공산주의 혁명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면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는 모든 행동규범을 규정하는 ‘교리’(dogma)의 성격이 더 강했다. 정치학이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중국사회에서 ‘제자리 찾기’를 시작한 것은 1979년 이후, 즉 덩샤오핑(鄧小平)이 사회과학 ‘보충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로 중국 정치학은 학과체계 건설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사회과학의 중요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 서구이념과 본토이념이 충돌로 사회적 복잡상이 심화되면서 오늘의 중국 정치학은 상당한 문제점들이 배태되고 있다. 특히 정치학 고유의 학문적 특성과 중국정치 체제적 속성 간에 존재하는 긴장감 때문에 중국 정치학은 아직 학문적 성숙도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30년 간 중국 정치학 발전 특징을 분석하고 그 속에 내재한 한계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을 두고자 한다. 지역연구로서의 중국정치에 대한 한국학계의 관심은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밀접해 지면서 중국정

1) 1880년 미국 컬럼비아대학이 사상 첫 정치학과를 설립하면서 정치학은 점차 독립적 학문분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반해 중국은 1898년 경사대학당에 정치당(政治堂)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중국의 정치학 발전의 시발점은 미국에 비해 십여 년 밖에 뒤쳐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王紹光, "中国政治学三十年：从取经到本土化", 『中国社会科学』, 2010년 6期, p.15.

치에 대한 연구성과도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학계 중국정치 연구는 그 연구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착안점을 중국 정치 현실자체에 둔 연구들로 이는 중국정치 연구의 절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한국학계 중국정치 연구들에 대한 ‘재성찰’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록 양적으로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동안의 연구들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향후 한국학계의 중국연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²⁾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중국정치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주요 연구대상은 한국학계에서 생산된 연구결과물들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 정치학의 발전현황, 연구동향과 평가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설령 있다하더라도³⁾ 주로 중국 정치학 자체의 회복과 발전과정에 대한 일반적 서술에만 그쳤고, 오늘날 중국 정치학계가 양산해낸 정치학 성과물들의 주요 특성과 그 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로 중국에서의 정치학 수용과 발전의 과정을 분석하고, 최근년래 중국 정치학 발전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정치학 발전의 주요 특성과 그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문제점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중국 관련 교육부문들에서 공표한 공식자료 및 정치학 관련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양적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 예컨대, 김인, 전병곤, “중국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대 지역학연구회(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외국어대출판부, 1996, pp. 197~199; 정재호(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4호, 2003; 정재호 외,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재고찰: 자료, 방법론 및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2호, 2005; 전성홍, “미국의 중국정치연구: 그 대안의 모색과 한국의 방향성,” 『사회과학연구』 제16집 제2호, 2008; 안치영, “현재 중국정치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와 이용,” 『현대중국연구』, 제13집 제1호, 2011 등을 참조.

3) 필자가 수집한 자료에 한할 경우, 급희연, “중국의 개혁개방과 정치학의 발전,” 『중소연구』 통권 93호, 2002; 양갑용, “개혁기 중국 정치학의 회복과 발전: 복단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9권 제1호, 2011 두 편이 있다.

II. 정치학의 복원과 발전

중국은 근대사회 진입 이후 서구적 사상을 적극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정치학 발전도 꽤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국 수립 이후 구소련 모델을 적극 수용하면서 서구 정치학은 전면 부정되었고 이에 따라 근 30년간 정치학 발전의 공백기를 겪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의 ‘사상개방’운동과 함께 정치학은 또 다시 복원과 재건의 단계를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중국에서의 정치학 발전단계를 주로 수용단계, 부정단계, 복원과 재건단계 등 세 가지 단계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개혁개방 이후의 단계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서구정치학의 수용: 19세기 말부터 신중국 수립이전까지

정치학(political science)이 중국사회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청말민초(清末民初), 즉 유신(維新)학자들이 정치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찾하고자 서구 정치사상들을 대량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 서구 정치학 저서들이 대량 번역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예컨대 1901년부터 1904년 4년간 중국에서 번역, 출판된 서구 정치학 서적들은 총 66종에 이르렀다고 한다.⁴⁾ 유신변법이 실시되었던 1898년에는 북경에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 1912년 북경대학으로 개칭)이 설립되었고, 1903년에는 경사대학당에 처음으로 정치과를 편성했다. 신해혁명(辛亥革命)이후 중국 내에 일련의 종합대학들이 설립되면서 정치학 관련 교육기관들도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4) 예컨대, 이 시기에 파슨즈(W. A. Parsons)의 *International law*, 젠크스(E. Jenks)의 *A Short History of Politics*, 몽테스키외의 *The Spirit of the Laws*이나 밀(Mill)의 *On Liberty* 등이 번역을 통해 들어오면서 서양의 정치사나 정치사상들이 중국에 소개되었다.

정치학 원로 자오바오취(赵宝煦)에 따르면 1948년 현재까지 중국 내 1백여 개 대학들 중 이미 40여 개 대학들에 정치학과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교육기관 설립 및 이에 따른 정치학 연구역량의 증대에 따라 정치학자들은 1932년 남경에서 중국정치학회를 설립, 1942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정치학회 연례회의를 소집하였다. 1946년 현재 정치학회 회원 수는 140여 명에 달했다.⁵⁾

근대사회로부터 신중국 수립이전까지 정치학은 독립적 학문분야를 형성하기 위한 시초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 인력의 총체적 규모로 보나 학문적 성숙도를 보아 아직 맹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학분야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구 제도나 사상 등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고 중국문제 특히 중국 현실정치를 다룬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⁶⁾ 게다가 1930년대 일제의 침략 등 불안정한 국내정세도 정치학의 학문적 발전의 공간을 크게 위축시켰다.

2. 서구 정치학에 대한 부정: 신중국 수립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1949년 신중국 수립 직후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우선적 과제는 바로 사회주의정권의 공고화와 전란에 의해 파괴된 국민경제를 하루 빨리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도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관해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치국경험이 전무한 중국공산당에 있어서 이 시기는 무엇보다 정치학발전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산당지도자들은 중국 현실에 부응하는 정치학 발전보다는 구소련 모델을 답습하는 길을 선택했다. 즉, '보편적 진리'로서의 마르크스주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교리'로 받아들여졌고, '구시대'(舊時代)에 받아들여진 서구 정치학은 자산

5) 赵宝煦, "中国政治学百年历程", 『东南学术』 2000年 第2期, pp. 39~40.

6) 王绍光, "中国政治学三十年: 从取经到本土化", 『中国社会科学』 2010年 6期, p. 13.

계급 국가통치의 이론적 도구, ‘유사과학’(僞科學)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1952년 구소련식 고등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각 대학 정치학과는 공식 취소되고 정치학 관련연구도 전면 중단된다.⁷⁾ 그 뒤 중소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논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정부는 1960년에 북경대 등 일부 대학들에 정치학과를 재설했지만 역시 마르크스주의 기본이론 강의 및 연구만 허용되었다. 그 이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제문제 전문인력 양성을 취지로 1964년 북경대, 복단대, 중국인민대 등 세 개 대학의 정치학과들은 국제정치학과로 다시 개편된다.

환언하면, 1952년 이후 중국의 정치학은 독립적인 학문영역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근 30년간의 공백기를 거치게 되었다. ‘정치우선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정치학 이론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더군다나 신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제도건설·정부기구·당정관계·행정관리·정책결정·민주권리 등 중대정치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학 자체의 생존 공간마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중국 당국의 정치적 실천과정이 불가피하게 주관적 오류로 점철될 수 있음을 예시해주는 부분이기도 했다.

3. 정치학의 복구와 재건: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소실되었던 정치학이 본격적으로 제자리 찾기를 시작한 것은 1978년 중공 제11기 3중전회 이후이다. 특히 1979년 덩샤오핑의 ‘보충학습’ 발언을 계기로⁸⁾ 30년간 침체되었던 사회과학영역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7) 물론 구소련 교육체계를 답습하여 정치교과과정중의 국가문제, 중국헌법, 비교헌법, 서양의회정부, 중국정치사상사, 서양정치사상사 및 국제법 등 학과목들은 모두 법학과에서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8) 1979년 3월 10일 덩샤오핑(鄧小平)은 당의 이론 공작회의에서 “...나는 정치영역들에 이미 연구할 과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년간 정치학·법학·사회학 그리고 국제정치 분야들에 관한 연구를 흡수해왔다. 시급한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고 발언함으로써 사회과학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산당 영도라는 일원체제 속에서 중국에서의 정치학 발전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구소련 및 동구권 붕괴, 그리고 천안문사태라는 내부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중국학계 정치학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징과 한계를 노정시키게 되었다.

(1) 정치학의 복원: 1978-1985

1980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 정치학회 설립대회를 시발점으로 정치학 학과체제 수립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중국 내 현실정치를 둘러싼 학자들 간 토론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우선, 대학 교육체계가 초보적인 기틀을 잡기 시작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이 적극 추진되었다. 1980년 상해 복단대학이 국내 최초로 정치학 전공 학부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1984년에는 복단대·북경대·길림대 등 대학들이 정치학 전공 석사 대학원생을, 1985년 북경대가 처음으로 박사 대학원생들을 모집했다.⁹⁾ 그러나 장시기 서구 정치학계와의 교류가 단절되고, 게다가 문화대혁명시기의 심각한 파괴로 인해 당시 정치학 교육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다. 심지어 교직원들이 참고할 만한 정치학 교과서마저도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치학회는 설립직후 『정치학참고자료』(政治學參考資料)¹⁰⁾를 학계에 보급하기 시작했고, 1982년에는 자오바오쉬(趙寶煦)교수의 『정치학개론』이 중국 내 첫 정치학 교과서로 출판¹¹⁾되는 등 정치학 학과체제가 초보적인 기틀을 잡아가게 되었다.

다음으로, 전문연구기관 설립 및 정치학회지 발간. 정치학이 본격적으로 복구단계에 들어서면서 정치학 관련 전문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고 전문학술

9)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계기로 수백 명의 젊은 정치학도들이 외국(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10) 『政治學參考資料』는 주로 2차대전 이래의 서구 정치학 발전 동향을 국내 정치학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1984년 『國外政治學』으로 개칭되었다가 1989년 폐간되었다.

11) 王紹光, 위의 논문, p. 17.

지도 개간되었다. 예를 들어, 1985년 중국사회과학연구원에 정치학연구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해 정치학 전문학술저널인 『政治學研究』가 발간되었다. 특히 『정치학연구』의 발간은 중국 정치학이 하나의 독립적 학문분야로 전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징표로 간주되었다.¹²⁾

이 시기 중국 정치학계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영역들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이론체계의 재정립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신중국 수립이후 집권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단순 부정보다는 승계와 변화라는 방식을 통해 재평가를 실행하고자 했다. 이념적 측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체계라는 비교적 큰 틀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나갔다. 중국 정치학계도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사상논쟁을 통해 “착취계급이 소멸된 현단계에 이르러 국가의 역할은 계급투쟁이 아닌, 무엇보다 경제문화 건설에 집중하는 것에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¹³⁾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총체적 방향을 ‘계급투쟁’으로부터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둘째, 대외개방의 물결을 타고 서구 정치학 지식들이 대폭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대량 서구 정치학 저서들이 번역 출판되었고, 서구 각국의 정치제도·의회제도·복지국가 등 서구 정치학 이론체계들이 중국 학계에 흘러들게 된다. 셋째, 중국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정치학계 내에서는 국가기구 개혁, 간부(幹部) 종신제 폐지, 일국양제(一國兩制), 정치체제개혁 등과 같은 정치핵심사안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토론이 전개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및 정치개혁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정치체제의 개념, 개혁의 필요성, 기본 목표와 내용, 개혁의 원칙과 핵심,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 간의 관계 등 문제들에 대한 논쟁이 가열화 되면서 정치학계는 국내 정치논쟁의

12) 张友渔, "中国政治学的兴起——代发刊词", 『政治学研究』, 1985年, 第1期, p. 56.

13) 王惠岩 著, 『政治学原理』, 吉林大学出版社, 1985年版, pp.72~73.

선두에 서게 되었다.¹⁴⁾

(2) 격정(激情)과 성찰: 1985-1992

1980년대 중반 이후 독립적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정치학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된다. 하나는 정치학 연구 규범화를 추구하여 국제사회의 정치학 발전 수준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혁·해방이후 밀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사조 또는 이념적 성향들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우선, 정치학 학문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볼 때 이념적 교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으로서의 정치학 이론과 논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 정치학은 30년이라는 공백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학 연구자들도 많이 결핍한 상태였고 기존 학자들도 대부분 국제공산주의 운동, 민족해방운동 등 마르크스주의 이론 전공 출신들이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년간의 동원체제 속에서 고착된 이념적 성향을 하루 이틀사이에 전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기존의 이념적 편향성을 탈피하여 과학성과 객관성을 띤 정치학 학문체계 구성이 시급했다. 특히 소장파 또는 유학과 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 정치학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서구 정치학을 참조물로 이념중심의 정치학(politics)으로부터 과학을 중시하는 일종 정치과학(political sciences)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¹⁵⁾ 이에 따라 정치학 연구대상, 연구주체 등 문제를 둘러싸고 학계 내에서 광범위한 토론이 전개되었고 이 와중에 알몬드의 비교정치학과 같은 서구 정치학 이론들이 중국학자들의 인식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주정치·정치문화·정치발전·정치질서·정치부패·중앙-지방관계·행정체제개혁 등 다양한 영역들에서 연구논문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정치심리학·정치사회

14) 王惠君·王书君, "论当代中国政治学的发展", 『社会科学战线』 1996年 第2期, p. 10.

15) 张国清, "从政治学到政治科学:中国政治学研究的难题与范式转换", 『厦门大学学报』(哲社版), 2004年 第5期, p. 28.

학·정치윤리학 등 신흥 연구영역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면서 정치학 학문 체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둘째, 이 시기를 중심으로 정치학 학술지평이 보다 확대되고, 담론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직면한 현실정치를 둘러싼 학내 논쟁이 가열화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중앙정부 자율성, 능력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정경분리, 당정분리 논의가 확산되었다. 이 와중에 1987년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정치체제개혁문제가 의사일정에 오르게 되자 이와 관련된 학계 내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서 경제자유화와 정치민주화 논쟁이 핵심적 이슈가 되었다. 예컨대 신권위주의자(보수학계)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진보학계)들 간의 논쟁이 가장 대표적이다. 신권위주의자들은 동아시아 발전경험 등을 토대로 이른바 ‘정경 이원화론’(政經二元化論)을 제기하면서 ‘과도기적 단계’에¹⁶⁾ 놓여 있는 중국은 무엇보다 현명한 지도자, 자율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은 신권위주의자들의 ‘정경 이원화’론에 반대해 나서면서 경제자유화 및 정치민주화의 병행추진을 주장하는 등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권위주의자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들 간의 논쟁은 1989년 4월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정치학계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¹⁷⁾

천안문 사건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등 국내외 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중국정부가 재차 조정기(調整期)에 들어서게 되자 중국정치학 발전도 그 여파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¹⁸⁾ 급진적 민주세력은 ‘자본주의자유화 세력’

16) ‘신권위주의자’들은 사회발전단계를 전제적(專制的) 권위주의정체→과도적 권위주의정체→현대민주정체의 3개 연속성의 단계로 구분하고 중국의 경우 둘째단계 즉 과도기적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17) 중국 정치학자들을 상대로 해외 정치학 이론을 소개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던 『國外政治學』과 중국 정치학 복구의 징표로 되었던 『정치학연구』는 1989년에, 상해에서 출간되었던 『政治學信息報』는 1988년에 정간(停刊)되었다는 점은 당시 정치학계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말해준다. 『政治學研究』는 1995년에 다시 출판이 허가된다. 그 외 1984년 국제정치학회(IPSA)에 가입했던 중국정치학회는 1991년 6월 동 학회에서 퇴출하였다.

으로 부정되고 학내논쟁이 일단락되면서 학계는 재성찰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결국 학내 여론은 공산당 영도체제 강화, 자본주의적 정치제도 거부(다당제, 의회제 등),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 등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치학 발전은 필히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중국의 정치발전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정치학 연구성과들에 대해서는 무비판적 수용(拿来主义) 보다는 중국 정치현실을 전제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러한 재성찰의 결과는 1992년 10월 중공 제14차 전당대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제14차 전당대회는 시장경제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치안정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정치 및 사회 안정이 없으면 개혁개방과 경제건설도 있을 수 없고, 또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면 사회 및 정치의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1992년 이후 정치논리는 경제자유화와 정치민주화 논쟁이 아닌 경제발전과 정치안정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3) 정치학의 ‘본토화’ 단계: 1992-현재

1992년 이후 중국 정치학계는 학문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재성찰을 거치면서 중국 정치학 정체성 형성의 문제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서구 정치학 이론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모방’(模倣)보다는 중국 정치현실에 부응하는 학문체계, 즉 정치학의 ‘본토화’ 내지는 ‘중국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 및 정치적 현실을 놓고 볼 때 서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발전사를 배경으로 한 서구 정치학은 중국 내 존재하는 정치현실에 올바른 답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정치학의 발전은 응당 국가 현실상황과 정치학이론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중국 정치학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18) 林尚立, "政治学与政治发展:中国政治学发展20年", 『政治学研究』 1998年 第2期, p. 3.

것이다. 예컨대, 중국 정치학자 왕후닝(王沪宁)은 중국의 정치학 발전의 기본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치학의 기본임무는 중국 특색의 민주정치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모델은 필히 사회주의 기본정치 원칙을 기초로,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정치통합과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필히 중국의 역사·사회·문화적 조건에 걸맞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중국 특색의 정치체제모델은 형성되기 어렵다”¹⁹⁾고 주장한다.

요컨대, 1992년 이후 중국 정치학은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전문인재 양성 및 학문체계 건설, 그리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기여를 발전목표로 잡게 되었다. 물론 서구 정치학 이론, 사상들과 완전히 단절시키고자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정치학 자체가 서구적 이론에 의해 주도되어 온 만큼 서구정치학과 중국현실간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어찌 보면 중국 정치학은 ‘중국화’ 내지는 ‘본토화’라는 사명과 함께 정치학의 국제적 패러다임에도 편입되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특유의 정치환경 속에서 정치의 학문성과 학문의 정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학 발전은 기타 지역이나 국가들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III. 중국 정치학의 발전성과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학이 30년간의 굴곡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어떠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는가. 환언하면 학문으로서

19) 王沪宁, "发展中的中国政治学", 《瞭望周刊》 1994年 第20期, p. 31.

의 중국 정치학이 어떤 수준에까지 도달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답하기 위해 주로 교육체계, 연구영역, 연구논문, 연구이슈, 서구 정치학과와의 관계 등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치학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초보적 완성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중국 정치학은 학과분류, 전문인력 양성 등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학과분류체계에서 정치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중국의 과학기술분류체계는 대체로 철학·경제학·법학 등 13대 학과분야(学科门类)로 나누고 있다. 정치학은 법학분야(法学门类)에 속하며, 법학·민족학·사회학 등과 함께 4개의 대분류(一級學科)를 구성한다. 정치학은 다시 정치학이론·중외정치제도·과학적 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중국공산당사·마르크스주의이론 및 사상정치교육·국제정치·국제관계·외교학 등 소분류(二級學科)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과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정치학 전문인력 양성시스템도 점차 제도화, 규모화 되어왔다. 중국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중국내 2,689개 대학 중 학과분류 기준으로 ‘법학분야’ 학부생, 석박사 대학원생 양성 학과는 총 6,432개에 달한다. 당해 연도 기준 졸업생 수는 박사대학원생 2,208명, 석사대학원생 19,473명, 학부생은 117,182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재학생 수는 박사대학원생 12,116명, 석사대학원생 75,273명, 학부생 465,40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외 법학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수는 46,345명에 달했다(<표 1>참조).²⁰⁾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대분류(一級學科)기준으로 2008년 현재 정치학 연구 종사자는 7,882명으로 법학분야 기준 총 연구인원 48,424명 중 16.28%를 차지했다.²¹⁾ 비록 정치학 전문인력 양성

20)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09年度统计数据』,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6200/list.html> (검색일, 2011.11.25).

에 관한 구체적 수치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제시된 법학분야 인적 구성에서 우리는 정치학 학과체계의 구성 현황을 대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중국정치학자들의 학술교류 단체인 중국정치학회는 1991년 현재에 이미 100여개 단체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1> 2009년 법학(법학, 정치, 사회, 민족)분야 전문인력 양성 현황 (단위:명)

전공 설치 (No. of Ed. Prog.)	대학원전공		학부 전공		평생교육		합계
	2,517		2,219		1,696		6,432
대학원생 수	졸업생		신입생		재학생		합계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2,208	19,473	3,355	27,730	12,116	75,273	140,155
학부생 수 (4년제 일반대학)	117,182		126,335		465,406		708,923
교직원 수 (전문강사 이상)	교수		부교수		전문강사		합계
	5,809		16,418		24,118		46,345

자료출처: 『2009年教育统计数据』, 중국교육부홈페이지(www.moe.edu.cn) 참조 및 재정리(검색일, 2012년 1월 10일).

2. 정치학 신흥연구영역의 확대

그동안 정치학 연구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중국정치·국내외 정치제도사·국제정치·비교정치·행정관리 등 정치학 주요학문분야의 학술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되고 있음과 동시에 국내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단일 학문 중심의 연구를 뛰어넘는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신흥학문분야(新興學科) 건설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

21) 중국 교육부 人文社會科學司가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 종사자는 13,741, 법학 연구 종사자는 20,288, 민족학연구 종사자는 1,192명, 사회학 연구 종사자는 5,321명, 정치학 연구 종사자는 7,882명에 달한다. 즉 법학분야 대분류를 기준 총 연구인원 48424명 중 정치학 연구인원은 16.28%에 달했다. "2008年人文社会科学活动人员学科分布", 中国高校人文社会科学信息网: <http://www.sinoss.net>(검색일, 2011년 11월 24일).

었다. 1988년 11월 쿤밍(昆明)에서 개최된 제3차 정치학 신흥학문분야 학술 토론회에서 ‘정치심리학’, ‘정치사회학’의 학문체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으로써 정치학 신흥학문분야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1992년 이후부터 ‘지도사상의 일원화와 학술관점의 다양화’라는 기조 하에 중국 사회 발전과 긴밀히 연계되는 신흥학문분야들이 점차 자기만의 영역을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예컨대, ‘3농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풀뿌리 민주(基層民主), 촌민자치 등 내용을 주제로 한 ‘농촌정치학’이 기틀을 잡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정치경제학적 시각에 기반을 둔 발전정치학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 외에도 현재 생태정치학·정치인류학·정치커뮤니케이션 등 20여 개 정치학 관련 신흥학문분야들이 자체만의 연구영역을 다져나가고 있다.²²⁾

3. 연구성과의 양산

정치학 관련 연구논문들도 급격히 증가해왔다. 2005년에 공개 발행된 인문 사회과학 전문학술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정치학 전문학술지는 340여 종으로 연평균 2만여 편의 정치학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²³⁾ 그중 CSSCI(Chines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급 전문학술지는 2010년 현재 39종,²⁴⁾ 동 학술지들에 해마다 약 5천여 편의 정치학 학술

22) 王义保 등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학 신흥학문분야를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기준하여 4대 분류, 20여개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기타 학과 이론과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정치문제를 연구하는 신흥학문분야이다. 예컨대 政治社会学, 政治心理学, 政治人类学, 生态政治学, 经济政治学, 둘째, 특정 영역 정치문제 또는 정치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신흥학문분야이다. 예컨대, 农村政治学, 地方政府学, 权力政治学, 政治文化学, 地缘政治学, 政治传播学, 发展政治学, 资源政治学, 网络政治学, 政治营销学 등, 셋째, 연구지역이 영역에 따라 民族政治学, 边疆政治学, 国防政治学, 警察政治学, 军事政治学, 教育政治学 등, 넷째, 정치학 이론과 방법으로 기타 학문분야를 연구하는 영역으로 예컨대 预算政治学, 安全政治学, 能源政治学, 灾害政治学 등이 있다. 王义保·师泽生, "中国政治学新兴学科30年:回顾与思考", 『探索』 2011年 第2期, p. 53.

23) 严强·魏姝·白云: 《中国大陆地区政治学发展报告(2000-2004年):以CSSCI为基础的评价》 《江海学刊》 2006年 第3期, 第88页.

24) 《中国社会科学引文索引来源期刊(2010-2011)目录》, 2009年11月25日, <http://lib.nwnu.e->

논문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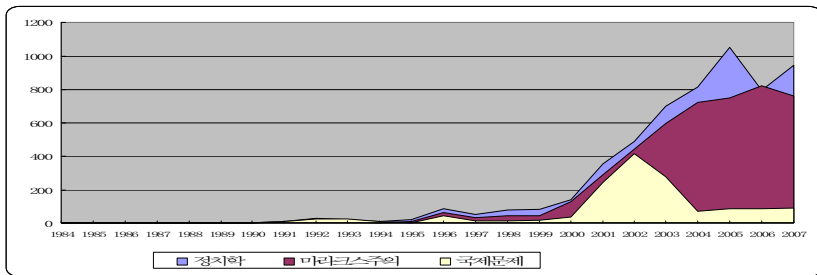
중국교육부 산하 인문사회과학사(人文社會科學司)가 공식 인준한 각급 연구과제(국제협력 포함)들에 의해 산출된 연구결과물들을 집계해 보면 1982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6년간 정치학, 국제문제연구, 마르크스주의 이론 등 세 분야에서 약 12만여 건의 연구결과물들이 생산되었다(<표 2 참조>). 특히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정치학분야 연구들은 대부분 1990년 이후부터 개시되어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인문사피화학 연구결과물 통계(1982-2007)

분류	저서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번역서	기타	합계
정치학	2,090	42,395	870	346	1,984	47,685
국제문제연구	2,448	26,136	1,185	426	1,924	32,119
마르크스주의 이론	1,482	37,338	394	87	2,129	41,430

자료출처: 중국 교육부인문사회과학사(<http://www.sinoss.net>/발표 각 년도 통계)

<그림 1> 인문사회과학 연구과제 집행 건수 통계



자료출처: 中國教育部人文社會科學司(<http://www.sinoss.net>) 각 년도 연구과제 목록에 근거하여 작성함.

4. 정치학연구의 주요 이슈와 쟁점의 변화

그동안 정치학연구의 주요 이슈와 쟁점들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

du.cn/refer/CSSci2010-2011.pdf.

25) 魏姝, "政治学研究领域学者和机构的学术影响分析: 基于CSSCI(2005-2006)数据", 『西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科版)2009年 第2期, p.69-70.

논문 주제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혁·개방 이전 연구논문들은 대부분 ‘해방’·‘혁명’·‘계급분석’·‘노선투쟁’·‘군중노선’·‘역사유물주의’·‘변증법’ 등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나²⁶⁾ 개혁개방 이후의 연구들은 무엇보다 현실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CSSCI급 저널에 게재된 정치학 논문의 주제어(Key words)에 대해 분석 결과 최근 중국 정치학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표 3> 참조).²⁷⁾ 첫째, 공산당 정당건설에 관한 연구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共産黨史』 분야 ‘和谐社会’·‘三个代表’·‘以人为本’ 등 38개 주제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3%로 제1위를 차지했고, 주제어 당 평균 출현 빈도는 55.63개로 집계되었다. 구체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공산당 발전사를 중심으로 논하기보다는 당내민주, 정치체제개혁 등 현실정치에서 집권당 집권능력 강화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관방담론’(官方話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학문연구의 정치화현상도 돌출하게 나타났다.²⁸⁾ 둘째, 정치학 이론연구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현실정치를 대변하는 민주정치영역과 정치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즉 ‘정치학이론’ 영역에 속하는 주제어 30개가 전체 주제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3%로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민주정치·지구화(全球化)·신자유주의·민족주의·이데올로기(意识形态)·자유주의·정치참여·민주·정치발전·정치문화·구성주의·정치철학·정당정치·공민사회·글로벌 거버넌스(全球治理) 등 주제어들의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분야가 정치학 부분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정치 측면의 경우 주로 국가이익·유럽통

26) 王紹光, 위의 논문, p.19.

27) 魏姝, "中国政治学研究热点与趋势分析: 基于CSSCI的分析," 『重慶大學學報(社科版)』, 2009年 第2期, p.76.

28) <표 3>에서 보듯이 제4위를 차지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 제8위를 차지하는 ‘마르크스주의이론과 사상정치교육’ 카테고리 내 주제어들을 포함할 경우 연구의 ‘정치화’현상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합·조화세계·테러리즘·지정학(地緣政治)·국제정치·국가안보 등 주제가 출현 빈도가 높았다. 국제관계의 경우 국제관계·국제관계이론·상해협력기구·중국굴기·중러관계·중국위협론·6자회담·이라크전쟁·북핵문제 등이다. 그중에서 6자회담·북핵문제 등 새로운 주제어들의 출현빈도가 최근들어 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국제정치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2005-2006년 정치학논문 주제어 분류

순서	주제어 분류	개수	전체 주제어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제어 인용 (indexing) 빈도수
1	중국당사(黨史)	38	20.43	55.63
2	정치학이론	30	16.13	38.77
3	기타	24	12.90	35.00
4	과학적 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	22	11.83	86.86
5	국제정치학	18	9.68	36.06
6	국제관계학	18	9.68	50.17
7	중외정치제도	16	8.60	34.31
8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사상정치교육	8	4.30	56.75
9	외교학	6	3.23	41.33
10	정치지도자(이름)	6	3.23	54.33

출처: 魏殊, 앞의 논문, 2009, p.76.

5. 서구학계와의 교류 활성화

서구 정치학계와의 학술적 대화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등소평의 1979년 ‘보충학습’ 발언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사회과학계에서는 서구 이론을 받아들이는 열조가 일었다. <표 4>에서 보듯이 1980년대 중반을 계기로 외국도서 번역출판을 책임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등 번역출판사들을 주체로 서구 정치사상 및 이론과 관련된 저작들이 대거 번역, 출판되었다. 비록 서구문화와의 충돌로 한동안 혼란기를 겪기도 했지만 당대에 이르러서도 서구 정치학·국제정치학 저서들이 육속 중국 학계 내에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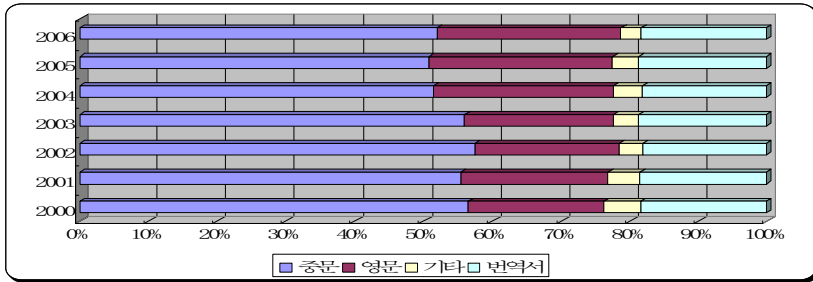
<표 4> 주요 서구정치학 저서 번역출판 현황

저자	서명(영문)	서명(중문)	번역	출판사/년도
Wilson	<i>Congressional Government: A Study in American Politics</i> (1886)	国会政体：论美国的民主	熊希龄	商务印书馆, 1986
T. Hobbes	<i>Leviathan</i>	利维坦	黎廷弼	商务印书馆, 1985
Aristoteles	<i>Politics</i>	政治学	吴寿彭	商务印书馆, 1987
Plato	<i>The Republic</i>	理想国	郭斌 외	商务印书馆, 1986
N. Machiavelli	<i>Il Principe</i> (1532)	君主论	潘汉典	商务印书馆, 1987
Tocqueville	<i>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i> (1835,1840)	论美国的民主	董果良	商务印书馆, 1988
Tocqueville	<i>De L'Ancien Regime et la Revolution</i> (1956)	旧制度与大革命	冯棠	商务印书馆, 1992
D. Miller	<i>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i>	现代政治思想：关于领域、价值和趋向的问题	王缉思 외	商务印书馆, 1985
A.J.P-Taylor	<i>The Struggle For Mastery In Europe : 1848-1918</i>	争夺欧洲霸权的斗争：1848-1918	沈苏儒	商务印书馆, 1987
David Easton	<i>The Political Systems :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i>	政治体系：政治学研究状况	马清槐	商务印书馆, 1993

출처: 商务印书馆 홈페이지 자료, <http://www.cp.com.cn> (검색일, 2012년 3월)

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학 연구들에서 외국문헌들의 인용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CSSCI급 정치학 논문들의 문헌인용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래 외국문헌 사용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참조). 즉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CSSCI급 정치학 논문들에 인용된 문헌은 총 215,851개, 그중 중문 문헌이 116,034개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환언하면 번역서를 포함하여 외국문헌 연평균 인용도는 45.6%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도 연구논문 중 번역서를 포함한 외국 문헌 인용 비중은 전체의 43.4%였으나, 2006년에 이르러서는 47.9%로 6년 사이 4.5%p증가했다. 이는 최근에 가까울수록 보다 많은 해외 관점들이 중국 정치학 논문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정치학자들이 해외 정치학과와의 접촉, 학술성과 참조능력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림 2> 정치학논문 인용문헌 언어별 통계(2000-2006)



자료출처: 2000년부터 2004년 수치는 严强·魏姝·白云, "中国大陆地区政治学发展报告(2000-2004):以CSSCI为基础的评价", 『江海学刊』, 2006年 第3期, p.88 참조; 2005년, 2006년 수치는 魏姝, "中国政治学研究概况分析:基于CSSCI分析", 『重庆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8年 第5期, p.89 참조.

IV. 평가: 중국 정치학의 한계와 과제

1. 이념과 학문: 학문의 정치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이데올로기는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를 일컫는다. 즉 이데올로기는 한 집단에 의해 사실이나 진리로서 받아들여진 사회적 제도와 절차들에 관한 가치체계이자 신념체계라 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인문사회과학은 이데올로기의 지배 또는 저항의 체계모니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학문은 각주를 단 이데올로기”²⁹⁾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학문은 각주라는 형식을 빌어 사고의 과정을 밝혀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학은 자체의 학문적 속성 때문에 이데올로기와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29) 브루스 링컨 저,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역,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당대 중국 정치학의 학문적 발전도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토대 형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기부터 일련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1992년에 이르러 중국 학계는 ‘사상의 일원화와 학문의 다양화’라는 학술기조를 형성했다. 반드시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전제하에 학문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현실에 주목하고 있는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 배태할 수 있는 정치성과 지배이데올로기 간의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정치학의 과학성, 학문성보다는 정치성이 보다 강조되는 성향을 나타낸다. 정치학이론과 중국 현실간의 화학적 결합을 강조한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정통학문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교조적(教條的) 입장도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1980년대 취약한 학문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상당부분 전문인력들이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로 충원되면서 정치학은 항상 ‘혁명적 패러다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비록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유학파를 포함한 젊은 학자들이 점차 정치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의 정치현실에 주목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항상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들고 견제의 태도를 보이는 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³⁰⁾

둘째, 1980년대 “진리 표준”을 중심으로 분출되었던 학술적 논쟁 분위기가 1990년대 이후로 점차 위축되면서 정치학계 담론구조가 마르크스주의 주요 사상가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의 언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일부 소장파 학자들은 “중국의 정치학 논리는 정치현상 해석을 위한 이론체계라기보다는 혁명담론(话语)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 즉 일반적으로 혁명 수령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본명제가 설정된다.....중국정치학 연구는 정치사상가나 지도자(權威人物)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 따라서 중

30) 徐长福, "中国的马克思主义研究向何处去?." 『求是学刊』 2003年 第4期, p. 14

국 정치학은 권위적 언설을 제외할 경우 이론적 예리함과 (학술적) 용기를 찾아보기 어렵다”³¹⁾고 예리하게 지적한다. 이것이 1990년대 상황이라면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일정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CSSCI 학술논문에 발표된 논문들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도서 10편은 모두 덩샤오핑, 마르크스·엔겔스, 마오쩌둥, 레닌 등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과 중국 정치지도자의 저서들이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에도 중국 정치학 연구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 주요 이론가들의 담론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5> 2000-2004년 정치학 논문에 인용된 주요 저서 TOP 10

순서	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1	邓小平, 『邓小平文选』, 人民出版社, 1983年版	664	775	584	633	612	3,268
2	马克思·恩格斯, 『马克思恩格斯选集』, 人民出版社1995年版	378	400	475	509	418	2,180
3	马克思·恩格斯, 『马克思恩格斯全集』, 人民出版社1995年版	314	336	336	391	359	1,736
4	毛泽东, 『毛泽东选集』, 人民出版社, 1991年版	238	436	355	310	279	1,618
5	列宁, 『列宁全集』, 人民出版社, 1984年版	208	251	241	244	199	1,143
6	列宁, 『列宁选集』, 人民出版社, 1995年	134	194	171	162	138	799
7	毛泽东, 『毛泽东文集』, 人民出版社, 1999年	41	101	92	106	108	448
8	江泽民, 『论三个代表』, 中央文献出版社, 2001年版	0	15	86	114	79	294
8	中央档案馆, 『中共中央文件选集』,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1年	42	53	71	58	70	294
10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建国以来毛泽东文稿』, 中央文献出版社, 1998年版	30	69	47	59	56	261

출처: 严强·魏姝·白云, “中国大陆地区政治学发展报告(2000-2004):以CSSCI为基础的评价”, 『江海学刊』 2006年 第3期, p. 91.

결론적으로 법학·사회학 등 기타 사회과학 분야들이 국제사회의 거리를 좁혀나가면서 국내 각 영역에서의 영향력도 날로 확대되는 반면, 정치학은

31) 王洪金·郭正林, “21世纪中国政治学的总体性转换:从革命理论到建设理论”, 『社会主义研究』 1998年 第1期, p. 53.

상대적으로 관료계층이나 민중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는 진일보로 정치지식의 사회적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환언하면 현실정치는 외면하고 규범적 이론만 반복 재생산됨으로써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민중들에 있어서 정치학은 ‘허위지식’(虛假知識)으로 간주되기 십상이었다.³²⁾ 따라서 중국 정치학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배이데올로기 유지와 정치학 발전이라는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중국 정치현실을 지도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사상의 진일보로는 되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마르크스주의 기본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사명을 띠고 있으나 한편 계급혁명이론에서 정제된 정통학설을 어떻게 국가건설의 학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관한 선형적이고 정당화된 이론의 부재로 중국 정치학계는 중국현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상의 일원화, 학문의 다원화’라는 학술기조 하에 이념체계와 학문체계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학은 지배 또는 저항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기능을 갖고 있기에 항상 일정수준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도 논의되었듯이 이념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폐쇄적일 경우 학문의 기형적 발전을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정치현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치학 발전과정에서 학술성과 정치성의 문제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학술적 논쟁이 정치화되는 현상을 지양해야 한다. 환언하면 “정치학의 발전은 현실정치의 민주화정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연한 학술환경 조성이 필요하다.”³³⁾

32) 俞可平, "中国政治学的进程：一个进程性的观察." 『学术月刊』 2007年 第11期, p. 9.

2. 수렴과 혁신: 정치학 정체성(本土化)의 문제

역사적으로 정치학의 정체성은, 첫째, 자연과학과 대비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정치학의 과학성, 둘째 법학, 철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정치학의 독자성, 셋째, 서구의 정치학에 대한 주체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³³⁾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세기 90년대 이후의 중국 정치학은 무엇보다 정치학의 주체성 문제, 즉 서구의존성과 탈피와 본토 정치학 형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중국 수립이후 30년간의 정체를 겪게 된 중국 정치학계는 1980년대 이후 ‘보충학습’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서구 정치사상 및 이론들을 대거 의존하는 단계를 거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까지의 정치적 시련을 경험하면서 중국 학계 내부에서 점차 정치학의 정체성 즉, 중국의 실정에 입각한 정치학 ‘본토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이념의 대립면에 서야 하는 중국 학계로서는 서구 중심적 정치학 이론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첫째, 서구 정치학은 정치현상에 대한 일반화된 논리를 갖고 있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적 편향성은 음성적으로 항상 기타 국가들의 정치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오한 이론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치(精緻)한 사상적 ‘도가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편향성 외에도 서구 정치학은 어디까지나 서구적 문화환경 속에서 배태된 만큼 중국 정치현실의 내적 요구에 적용되기 어려운 맹점(盲點)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구 정치이론에 의한 종속화를 경계하고 무비판적 수용보다는 비판적, 선별적 수렴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학자들은 중국

33) 俞可平, 위의 논문, p. 6.

34) 강정인·정승현, “현대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담론: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010년 제18집 제1호, p. 9.

정치학의 ‘본토화’를 위해서는 비판적 수렴, 창조적 사고, 평등한 교류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³⁵⁾ 외부이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수렴을 전제로 중국의 현실에 부응하는 창조적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자신감을 갖고 외부학계와 쌍방향적 소통을 진행함으로써 서로 간에 정치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중국 정치학 발전 현실을 고찰할 경우 이러한 ‘본토화’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첫째, <표 5>가 설명해주듯이 정치적 관용도 저하로 일부 정치학자들은 “안전한 학문의 세계로 피신하여” 국내 정치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사상가 및 지도자들의 언설이라는 그늘 아래서 규범적 이론의 구성에만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학 연구가 ‘학문적 예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관용도의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정치현실에 대한 일반화 및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즉, 기초이론 연구가 빈약하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구 정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던 시기에 중국은 오히려 30년이라는 ‘정체기’를 겪게 되었고, 또한 중국 정치학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치현실에 대한 일반화 노력은 항상 후진적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또 다시 자체의 체질에 맞게 서구 정치학을 수렴할 수 있는 ‘면역력’을 취약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서구중심적 정치학 이론이 가질 수 있는 가치적 편향성과 ‘맹점’에 대해 경계의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걸러 낼 수 있는 기초이론이 취약함으로 인해 서구이론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서구 이론과 중국 전통학설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외부지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수렴 통해 정치학에서의 혁신을 도모해내는 것 또한 중국 정치학 자체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라 할 수 있다.

35) 王紹光, 위의 논문, p. 26.

3. 규범과 경험: 연구방법의 문제

연구방법은 객관적 사물의 내재적 규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 도구라 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도 연구방법은 다양한 사조들 간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중요분과 중 하나로 발전해왔다.

중국이 서구적 연구방법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특히 경험철학에 기반을 둔 행태주의 연구가 중국의 전통적 규범연구에 도전장을 제시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선택이론, 신제도주의, 후기행태주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다양한 시각에서 출발한 연구방법들이 정치학의 세계를 보다 풍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치학계는 경험연구의 양적인 증가에 반해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직 국제사회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상태임은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내 주요 정치학 저널인 『政治學』 과 『政治學研究』 에 게재된 293편의 정치학 연구논문 중 196편은 규범연구에 속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험연구는 겨우 97편 전체의 32.1%에 불과했다. 특히 무작위표본추출에 의한 규범화된 실증연구는 단 1편에 불과했다.³⁶⁾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政治學研究』 에 게재된 총 553편의 정치학 연구논문 중 229편이 규범연구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경험연구는 254편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다.³⁷⁾ 이는 20세기에 비해 최근 몇 년간 경험연구가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기 경험연구들의 논증기초인 도표나 수치의 획득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등 연구의 규범화에 있어서는 아직 상당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엄격한 경험연구의 기본 과정과 절차로 이들 경험연구를 분석할 경우 절대다수는 실지로 비경험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

36) 肖唐镖·陈洪生, "经验研究方法在我国政治学研究中应用的现状分析," 『政治学研究』 2003年 第1期, p. 120.

37) 赫泉玲·贺晶晶, "中国政治学研究方法之趋势," 『长春大学学报』 2011年 第9期, p. 77.

하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학논문과 중국의 정치학논문들을 비교했던 謝韜와 Lee Sigelman는 현재 중국정치학은 여전히 “미국 정치학에서의 행태주의 혁명 이전의 수준”에 놓여 있으며, 경험연구는 중국에서 아직 ‘맹아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환언하면 중국의 정치학 연구는 현재 여전히 철학적 사변(思辨), 경전(經典) 해석, 규범적 정성연구, 역사제도주의적 연구방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또한 비록 경험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실지로 세련된 방법론적 운용능력을 갖춘 정치학자가 많이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국 정치학이 기타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첫째, 앞에서 제시되었듯이 1980년대 정치학계 회복기에 마르크스주의 이론연구에 종사했던 상당수 학자들이 정치학계로 입문하면서 연구방법이나 개념체계의 측면에서 철학 영역에서 통용되던 연구방법 전통을 이어가는 이른바 ‘경로의존성’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중국의 특수한 지식배경은 규범연구 위주의 학술 풍조 형성에 일조했다. 둘째, 학자들이 성과주의에만 매달려 상대적으로 연구논문의 양적 생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정치적 관용도가 낮기 때문에 연구들 대부분이 국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거치는 이른바 ‘문제진단’보다는 국가 정책의 주석 수준에 불과한 ‘문제처방’들만 양산하고 있다. 셋째, 연구방법론에 대한 정치학계의 중시도가 높지 못하다. 미국 정치학은 학과체계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정치연구방법론을 특별히 강조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필히 연구방법론 분야 인재양성 및 방법론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주로 개혁·개방기 중국 정치학 수용과 발전의 과정을 분석하고, 최근년대 중국정치학 발전의 주요 특성과 그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문제들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정치학 발전사의 맥락에서 볼 때, 중국학계와 서구 정치학간의 교류는 꽤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중국 수립이후 30년이라는 정체를 겪으면서 중국정치학과 해외 정치학계간의 거리는 보다 멀어진다. 1979년 덩소핑 ‘보충학습’ 발언은 사회과학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부터 중국 정치학도 복원단계, 성찰단계를 거쳐 현재에는 ‘본토화’를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평가할 수 있다.

30년의 발전과정을 거쳐 중국 정치학도 기존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학과분류체계가 명확하고 전문인력 양성시스템도 점차 제도화, 규모화 되고 있다.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정치커뮤니케이션학(政治传播学), 민족정치학, 에너지정치학, 환경정치학, 사이버정치학(网络政治学) 등 다양한 신흥학파들이 자체만의 영역을 다져나가고 있다. 정치학 전문학술지는 2005년 현재 340여종, 연 평균 2만여 편의 정치학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연구주제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시기의 ‘혁명적 패러다임’의 학문전통을 탈피하고 현실정치 중심의 새로운 학술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정치학계와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서구의 정치학연구들이 중국의 정치학 논문들에 반영되는 비중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치학 본연의 특성, 그리고 글로벌 시대 서구이념과 본토이념간의 충돌 속에서 중국 정치학은 허다한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학술의 정치화 현상이 돌출하며, 학자들은 ‘관방언설’에 의존하는 규범적 연구에만 치중하고 정치현실에 대한 예리한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기타 비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학 '본토화'라는 당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관점들을 합리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기초이론적 토대가 빈약하다. 결국 '하나의 사상을 전제로 학술적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이지만 정치현실에 주목하고 있는 정치학의 정치성문제와 지배이데올로기간의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중국현실에 부응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가, 정치환경 개선을 통해 학계 내 구성원들을 학술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중국 정치학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는 중요한 청우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정승현, "현대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담론: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010년 제18집 제1호.
- 금희연, "중국의 개혁개방과 정치학의 발전." 『중소연구』 통권 93호, 2002.
-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4호, 2003.
- 김인·전병곤, "중국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대 지역학연구회(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의국어대출판부, 1996.
- 브루스 링컨 저,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역,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 안치영, "현재 중국정치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와 이용." 『현대중국연구』 제13집 제1호, 2011.
- 양갑용, "개혁기 중국 정치학의 회복과 발전: 복단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9권 제1호, 2011.
- 전성홍, "미국의 중국정치연구: 그 대안의 모색과 한국의 방향성." 『사회과학연구』 제16집 제2호, 2008.
- 정재호 외,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재고찰: 자료, 방법론 및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2호, 2005.
- 정재호(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
- 俞可平, "中国政治学的进程: 一个进程性的观察." 『学术月刊』 第11期, 2007.
- 林尚立, "政治学与政治发展: 中国政治学发展20年." 『政治学研究』 第2期, 1998.
- 徐长福, "中国的马克思主义研究向何处去?." 『求是学刊』 第4期, 2003.
- 王义保·师泽生, "中国政治学新兴学科30年: 回顾与思考." 『探索』 第2期, 2011.
- 王惠君·王书君, "论当代中国政治学的发展." 『社会科学战线』 第2期, 1996.
- 王惠岩 著, 『政治学原理』, 长春: 吉林大学出版社, 1985.
- 王洪金·郭正林, "21世纪中国政治学的总体性转换: 从革命理论到建设理论." 『社会主义研究』 第1期, 1998.
- 王沪宁, "发展中的中国政治学." 『瞭望周刊』 第20期, 1994.
- 王绍光, "中国政治学三十年: 从取经到本土化." 『中国社会科学』 6期, 2010.
- 魏姝, "政治学研究领域学者和机构的学术影响分析: 基于CSSCI (2005-2006) 数据." 『西南民族大学学报』 (人文社科版) 第2期, 2009.
- 魏姝, "中国政治学研究概况分析: 基于CSSCI分析." 『重庆大学学报』 (社会科学版) 第5期,

2008.

魏姝. "中国政治学研究热点与趋势分析: 基于CSSCI的分析." 『重庆大学学报(社科版)』 第2期, 2009.

严强·魏姝·白云. "中国大陆地区政治学发展报告(2000-2004):以CSSCI为基础的评价." 『江海学刊』 第3期, 2006.

严强·魏姝·白云. "中国大陆地区政治学发展报告(2000-2004年):以CSSCI为基础的评价." 『江海学刊』 第3期, 2006.

肖唐镖·陈洪生. "经验研究方法在我国政治学研究中应用的现状分析." 『政治学研究』 第1期, 2003.

赫泉玲·贺晶晶. "中国政治学研究方法之趋势." 『长春大学学报』 第9期, 2011.

张友渔. "中国政治学的兴起——代发刊词." 『政治学研究』 第1期, 1985.

张国清. "从政治学到政治科学: 中国政治学研究的难题与范式转换." 『厦门大学学报』 (哲社版) 第5期, 2004.

赵宝煦. "中国政治学百年历程." 『东南学术』 第2期, 2000年.

『中国社会科学引文索引来源期刊(2010-2011)目录』 (2009年11月25日), <http://lib.nwnu.edu.cn/refer/CSSci2010-2011.pdf>.

"2008年人文社会科学活动人员学科分布", 中国高校人文社会科学信息网: <http://www.sinoss.net> (검색일, 2011년 11월 24일).

中國教育部人文社會科學司: <http://www.sinoss.net>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09年度统计数据』,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6200/list.html> (검색일, 2011.11.25).

商务印书馆: <http://www.cp.com.cn>.

ABSTRACT

Development Outcomes and Subjects of China Political Science
during the Reform and Opening up Period

Piao, Dong-xun
(Yanbian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 Political Science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 up policy" and explores the main problems that currently faced by the Chinese Political Science.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can know China Political Science has got a remarkable development under the limited political environment. But there are some inevitable problems, which most serious problem i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politicized Academic than the political realities". How to overcome the "tens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 of political science" and "ideology" is the biggest challenge to the China Political Science circles. Therefore, to improve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o promote the academic discussion atmosphere are the key facto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uture political science.

Keywords: China, Political Science, Outcomes, Subject

투고일: 2012년 6월 28일, 심사일: 2012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0일